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6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1 호

## 불교총지종과 진각종, 밀교학 공동 연구

### ‘한국밀교학회’ 중심, 통리원장 나란히 자문단에

불교총지종과 대한불교진각종이 한국 밀교 발전을 위해 ‘한국밀교학회(Korean Association of Esoteric Buddhism)’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지난달 한국밀교학회 자문단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부회장단에 선임되면서 양 종단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불교학·밀교학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디뎠다.

‘한국밀교학회’ 공동 참여에 관한 제안은 진각종에서 시작됐다. 진각종 산하 회당학회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를 통해 학회명을 ‘한국밀교학회’로 변경하고, 회당 사상뿐만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한국밀교학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니라 한국의 밀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밀교학자들과 함께 명실상부한 밀교연구의 전담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신임 집행부의 진각종 방문 당시 총인 경정 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와 교육원장 효명 정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도 논의가 지속됐다.

경정 총인은 “회당학회를 ‘한국밀교학회’로 바꾸고 외연을 넓힐 예정이다.”며 “한국밀교학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위해 총지종도 함께 하자.”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정 총인은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양 종단이 한번 씩 주관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면으로 이어짐



## 제14대 통리원장 우승 종사 입적

### 25일 고결식, 왕생성불과 구경성불 서원

제14대 통리원장 우승 종사가 5월 23일 세수 83세, 법랍 35세로 입적했다. 우승 종사는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교무로 재직하다 1988년 전법관 정수계를 받은 후 승직에 올랐다.

제5, 6, 7대 중앙총의회 의원과 제6대 중앙총의회 부의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등 종단 주요직을 맡아 총지종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통리원장 재임시에는 종조전인 ‘원정기념관’을 역삼동 본산에 개관하고, 종조 선양과 종단 홍보에도 힘썼다. 또 BBS 불교방송 이사, 불교TV 이사, 한일불교교류대회 상임이사 등을 역

입하며,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발전에도 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한결같은 진언행자로서 제석사와 국광사 주교, 대구경북교구장 등을 맡아 중생 제도와 교화를 위해 일평생 용맹정진 해오다 지난 2009년 기로원 진원에 들었다.

빈소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사흘간 통리원장으로 봉행됐다. 장의위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25일 오전 고결식을 마지막으로 우승 종사 영시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원하며 회향했다.

수행이력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
	1988년	전법관정수계
	1989년	제5대 중앙총의회 의원, 제석사 주교
	1993년	제6대 중앙총의회 부의장
	1997년	제7대 중앙총의회 의원
	2000년	대구 경북교구 교구장에 명
	2001년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2002년	국광사 주교
	2004년	제14대 통리원장
	2009년	기로원 진원
	2022년	5월 25일 입적

## 사회복지재단 2021년 후원금 총 2천7백 만원

###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에 사용

총기 50년 지난 한 해 동안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이하 재단)의 개인 후원이 연인원 1천 명이 넘었으며, 회사 금액도 2천7백 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이 공개한 지난 3월 개최된 2022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인 후원이 총 1,198건으로 매달 꾸준하게 100여 건에

다다른 회사가 이어졌다. 집계 금액은 총 27,295,000원으로 밝혀졌다. 또 후원금은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회사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에 360만원, 저소득 교도 가정 지원 480만원, 강남구청과 결연되어 지원하는 희망온돌 겨울나기 사업 500만원, 한국불교기자협회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총지장학금 50만원, 서울시 후원 저소득층 농아인 지원 30만원으로 이들 사업에 총 14,200,000원이 사용됐다.

또 재단 산하 어린이집, 복지관 등 위탁시설에도 후원금이 재단 전출금과 함께 지원이 됐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과 일

원어린이집 등 8개 보육시설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와 장교절 및 입학선물, 간식 등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우인 정사는 결산심의 후 “코로나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사회가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소중한 후원에 누가되지 않도록 재단이 투명한 행정으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원 문의 = 02-3452-748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종/조/법/어

어느것 불상(佛像) 아닌 것이 없으며, 어느 것 불공 아님이 없고, 어느것 설법 아님이 없느니라.

### =지 면 안내

- 4면 불교총지종 사원사<4>
- 7면 창종 50주년 특집/총지종의 역사<3>
- 11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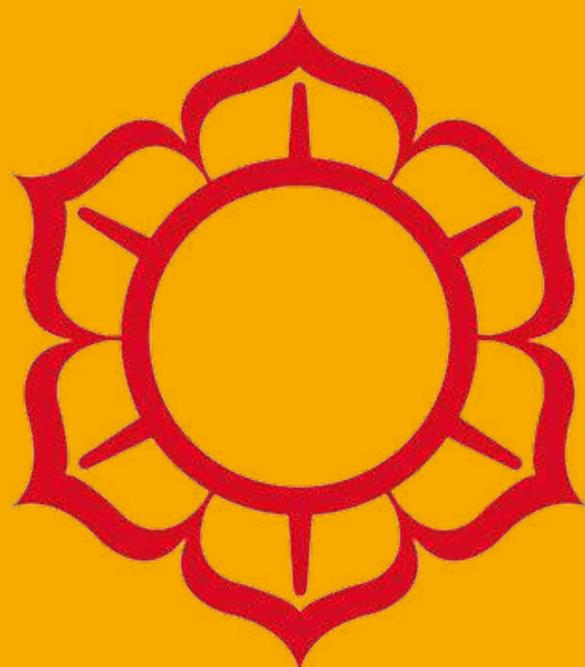
# 총기 51년 49일 하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5월 28일(토)~7월 15일(금)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 우인 정사 초청 정각회 법회 봉행

##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 주제로 법문

총리원장 우인 정사가 대한민국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법사로 초청되어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를 주제로 법문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내 법당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정각회 5월 정기법회에서 우인 정사는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며 용맹정진해야 빠른 깨침이 일어난다고 설파했다. 우인 정사는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에 사로잡히면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인 정사는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며 자리아타 대승불교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종단”이라고 설명하며, “마음의 실상을 찾는데 수행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법문의 서두를 열었다.

또 “정보화 홍수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며, “바른 법을 구하고 수행을 이어가야만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어 우인 정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각이나 느낌 같은 오온은 조건이 돼 일어날 뿐 그 오온의 작용에 속지 않아야 고통의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법문을 마쳤다.

법회에 참석한 이원욱 회장(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은 “정각회 회장에 취임하면 서부터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 사상인 ‘화쟁’의 정신을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 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교총지종의 우인 정사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화쟁’의 정신이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이원욱 국회정각회 회장을 비롯해 민병덕, 양정숙, 이수진 의원,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조기열 회장 등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불교TV에서는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우인정사 편을 BTN스페셜로 편성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방송했다. <관련 법문 5면>

### 1면에서 이어짐

도전 정사도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때로는 발걸음을 나란히 하면서 한국불교와 생활불교를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총지종에서도 꼭 동참하여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뜻을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인 정사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주 만나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며 뜻을 모았다.

## 신임 유지재단 감사에 묘흥, 지현 전수 선임

### 제162회 임시 중앙 총의회에서 묘흥 전수, 사회복지 감사 겸임



묘흥 전수



지현 전수

중앙 총의회(회장: 범상인)는 신임 유지재단 감사에 묘흥 전수(삼밀사)와 지현 전수(자석사)를 선임했다. 또 묘흥 전수는 사회복지 감사에도 선임됐다.

제162회 임시 중앙 총의회에는 지난 5월 17일 본산 총리원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제195회 원의회와 제132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합동으로 개최됐다.

한국밀교학회는 앞으로 불교학·밀교학·회당학 등의 연구와 실천수행의 내용들을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에 담은 한편, 연구 내용들의 진실성과 학술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대 한국밀교학회 회장 효명 정사는 “앞으로 한국밀교학회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에 전국 각지에서 불교 및 밀교의 법을 펼치시고 계시는 스승들과 스님, 학자들을 비롯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총리원장 우인 정사는 “한국 밀교의 양대 산맥인 두 종단이 그동안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밀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노력해 왔으나, 공동 연구체계를 가지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는 창종 이래 처음이다.”며 “우리종단의 법장원과 밀교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와 교류를 통해 최신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잘 이어받아 종단과 밀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불기 2566년 봉축법요식 전국서 봉행

### 종령 예하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

종단은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5월 8일 서울 본산 내 총지사와 부산 정각사 등 전국 각 사원에서 불기 2566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지심으로 찬탄했다.

이날 종령 법공 예하는 총지사 법회에 참석해 봉축법어를 통해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몹쓸을 앓고 있는 오늘날 부처님의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가진 자가 더 배불고 나누어 준다면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경도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또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도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고 설파했다.

총리원장 우인 정사도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삼계의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팔만사천 가지 해탈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며, “부처님이 열어주신 본심을 되찾아 온 세상을 밝히고, 일상을 되찾자”고 서원했다. <관련 화보 11면>

## 내마음의 등불

자석사 지현 전수

### 소가 물을 먹으면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배우면 보리를 성취하고 어리석은 자가 배우면 생사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우기 때문이니, 사람은 많이 듣고 배우기를 싫어하나 깨울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엄경(華嚴經)』, 불교총전 P293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개인 지혜와 말씀을 필데이시므로 소개합니다. 자석사 지현 전수님은 밀인사 보현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총기 51년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 전국 사원 또는 교구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예정



5월 28일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었다.

사진=부산 정각사

불교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전국 사원당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총지종 교세발전,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 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 등 나라와 일체중생의 영식천도, 업장소멸을 서원하며 49일 간 불공을 올린다. 49일 불공은 밀교의 호국 경건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실시하는 진호국가불공이며,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감는 불공의 일환으로, 사대 은혜에 보은하는 중요 실천불공이며 해탈정에 회향한다.

한편 매년 회향할 다음 날인 7월 16일에 진행해왔던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사원 또는 전국 각 교구별로 3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 천태종, 상월 스님 48주기 추모

### 27일 구인사 광명전서 열반다례법회 봉행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무연 스님)은 지난달 27일 오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사의 열반 제48주기를 맞아 ‘상월원각대조사 제48주기 열반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흥 종정 예하, 원로 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등 천태종 사부대중과 함께 총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임원, 김태현 문화체육관광부 주무실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엄태영 제천·단양 국회의원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무원 총무원장은 추모사에서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제48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하며, 소백산 연화성지에 핀 법화와 대조사님께서 일깨워주신 시대 보살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며 대조사님의 열반을 추모했다.

## 근대화 이끈 불교인물 선양 사업

### 종단협, 독립·문화 등 5개 분야 12명 선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종단협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항일투쟁과 문화운동 등을 이끈 불교 선지식과 지식인 12명을 발굴해 선양하는 사업을 본격화 했다.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대한

민국 근대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불교인 발굴과 선양을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불교 발전과 흥조에 이바지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2021년 스님과 정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6명(도각·진관·원철·재흥·진경 스님, 사부총장 도각 스님은 “대한



천태종은 5월 27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48주기 열반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매년 회향할 다음 날인 7월 16일에 진행해왔던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사원 또는 전국 각 교구별로 3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순서, 김경철, 한금순, 황상준, 한동민, 장재진, 이상수)를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해 네 차례 회의를 갖고 40여 명의 후보 중 논의를 통해 12명을 추려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12명은 다음과 같다. △신학수 스님 △박노영 △김상연 △박봉성 △한성준 △나혜석 △우봉운 △고유섭 △김규진 △이준현 △강유문 △황의돈

## 환경과 생태

### 지혜의논

## 연기론(緣起論)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 인류문명의 위기, 불교의 세계관으로 극복

뜻하지 않게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사는 고장의 습지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안내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한 쪽지를 맡아서 강의의뢰가 들어온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환경(環境, environment)과 생태(生態, ecology)였습니다. 환경이란 용어 자체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이 주위를 둘러싼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는 인간을 일부로 보는 관점으로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생태라는 용어 또한 인간에 의해 설정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한 중립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사고에는 일원론 아니면 이원론 이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도 한 논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적 사고에는 불이(不二)라는 철학이 있어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원리를 더없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이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도덕경에도 유무상생(有無相生)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요.

‘환경’은 말 그대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주변에 설정한 것으로 이러한 논리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 계통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동물 등의 계서(階序, hierarchy)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연의 세상만물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질 일종의 소유물로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연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주장을 많은 신부와 목사님들이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편으로 환경이라는 용어에 인간의 기술 문명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환경보호는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천적인 늑대를 사냥하여 늑대가 거의 멸종이 되자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늘어난 사슴은 굶어 죽기 시작하자 비로소 늑대가 사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적 환경재앙도 현재의 인간의 기술문명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구 환경의 파괴는 점차 지구에서의 인간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예서 이렇듯는 인류 문명을 붕괴시켜 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인류가 한 번 멸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문제가 다시 원시상태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비 행태는 인류 문명을 붕괴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인류문명의 붕괴를 막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 뿐입니다. 유일신교 계통은 욕망을 절제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모든 생명을 등가(等價)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불교나 도교 같은 동아시아의 사유체계가 소환된 것이죠. 불교와 도교가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현재 인류 문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들 사상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신자를 모두 합쳐도 오히려 인도의 힌두교인의 숫자보다도 적습니다. 유일신교 계통의 신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일원론에 불과나와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을 가르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불교는 쇠퇴하는 그래서 머지않아 화석화된 운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가 불교의 세계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총리원장 우인 정사는 5월 11일 국회 정각회 법사로 초청돼 불자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법문을 했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복) 13.5x17x3cm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핀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0,000	₩ 40,000	

구입문의 | 총리원(02-552-1080) 또는 각 사원

불교총지종 총리원

## ‘2022년 꽃할매 꽃할배 효잔치’

수인사와 함께 하는

▶ 날짜: 총기 51년 6월 18일(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2시 ▶ 장소: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행사 후원: 수협 2010-0891-3775 | 예금주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수인사급식

불교총지종 수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67(덕산동) Tel. 054)247-7613

불교총지종 사원사

정성으로 일군 도량 ④

내적 기반을 탄탄히 한 종단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나섰다. 1990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하여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BBS와 BTN 이사종단으로서 방송포교를 이끌었다. 전국의 사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진정한 생활불교 공간으로 거듭났다. 불교요양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합창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정각사 바라밀지역아동센터, 흥국사 만다라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과 복지단체 지원 등으로 이웃을 보듬었다.

복합문화공간이자 복지도량으로 거듭난 사원은 2000년대 들어 밀교사원다운 위의를 갖췄다. 밀교의 모든 가르침을 구현하고 있는 급강계-태장계 만다라를 2002년 10월 24일 총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사원에 봉안했다. 2008년부터 종성의 화도방편으로서 수인사, 성화사, 화음사, 제석사, 만보사, 실지사, 삼밀사, 밀행사, 관선사, 개천사, 정각사에 특락전을 조성했다. 서원당과 특락전, 육자진언과 만다라가 조화를 이루 종단 사원의 새로운 건축미와 조형미를 형성화했다. 초창기에는 사원 구조가 대부분 소박하고 비속하여 누가 봐도 종단

사원임을 알 수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 입지조건에 맞춰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원건물을 조성했다. 특히 관선사와 범성사 등은 도심형 수행도량으로서 미래형 사원 모델의 면모를 창출했다.

행정 중심의 종단 본산 총지사와 더불어 수행 중심의 집중기도도량을 준비했다. 1984년부터 대지를 매입하고 1988년부터 어린이와 중

고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선지망 우수학교로 발전했다. 바쁜 틈틈이 서원당에서 삼배를 드리고 조용히 명상에 들어 있는 학생과 교사의 모습에서 종립학교의 기틀이 탄탄히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좁고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도심 재개발로 인해 사원을 신축하면서 임대사업을 본격화했다. 1998년 총지사 이후 시범사, 범

복합문화공간에서 복지도량으로 위의를 갖춰 중립 동해중학교 내 서원당 ‘동해사’도 개원

고등학생, 그리고 교도들을 위한 수련회 장소로 활용했다. 달랑 수련원 건물만 있었기에 수련회 한 달 전부 터 스승들이 직접 등짐을 나르며 화장실과 세면장 공사를 하기도 했다. 과산 수련원은 2012년 5월 중원사로 이름하고 대규모의 서원당과 수련원, 숙소 등을 지어 스승과 교도들을 위한 집중수련공간으로 일신했다. 2016년 10월 25일 현공불사 이후 집중수행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밀교관법 수련회와 만다라 행복아

를 창립한 중립 동해중학교에 2016년 동해사가 개설되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월 1회 불교와 인문교양 인성교육 특별활동을 진행했다. 교직원 불자회는 월 2회, 반야회는 월 1회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특별활동과 정기법회를 통해 불교와 종단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학교운영은 활기를 더했다. 삼급학교와 우수학교 진학률이 향상되

황사, 실보사, 정각사, 벽룡사 등이 이전과 재건축, 건물 매입과 신축 등을 계기로 임대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2020년 완공한 범성사는 서원당 외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여 능동적인 변화를 꾀했다. 임대건물은 모두 종단에서 일괄 관리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재정 자립의 기반을 정착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미래 사업의 동력을 확보했다.



서울 관선사



전주 흥국사



전주 화음사



과산 중원사

사원의 변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다

통리원장 우민 정사 국히 정각히 특별법히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갔습니다. 절에 가서서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 개고아담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 즉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며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삶이 고이며, 이 고통 없게 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몸을 나누신 것입니다. 부처님 믿고 삶이 많이 편안해졌습니까?

용맹정진으로 바른 깨침이 일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보니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정보가 정말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바른 법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험고 빨리 알고자 하나 수행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용맹정진이 있어야 바른 깨침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 제제 시 갈라마인들이 자기 마음



정각회에서 법문중인 통리원장 우민 정사

을 방문한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뻏따(Kesaputta)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문, 바라문들 또한 깨사뻏따에 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존경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탐진치 때문 부처님은 마음속의 탐진치(貪瞋癡)가 있는 한, 아무리 미사여구로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쳐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괴로움은 우리 마음의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실천했을 때 마음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본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다 총지종을 창종 하신 원정대성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환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괴로움이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지혜 생기면 자연스럽게 삶 태도나 방향이 변할 수 있어

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예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덥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대들은 당연히 미덥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미덥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

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 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갈라마경(Kalama-sutta)』 중에서

석음이 줄어든다면 그 법이 바른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간에 피어어족이란 말이 있더군요. 돈 빨리 벌어서 은퇴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빚내서 욕심부리다 벼락거지가 된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우선 건강해야 하고,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나라도 잘 만나야 하고,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행복에 있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는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불교가 보급되고 상류층 사람들이 불교 수행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왜 수행에 열광할까요? 행복이라는 것, 괴로움이

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배웁니다. 그것이 내 행복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의 조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조건과 더불어 마음 뒤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행복의 조건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나 방향이 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없이도 지극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대일경』 <주심품>에서는 이렇게 생겨난 앓들에 대해서 허공같이, 환상같이, 그 대로 그려낸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마음이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려낸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조건 되어서 스스로 생겨난 이러한 앓들에 대해 알아차림하고 놓아버리는 것, 의 미를 두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도 그냥 받아들이고 놓아버립니다. 모든 일어난 일은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마음 스스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점점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이

미 행복할 것입니다. 욕심은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납니다. 화도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야할 조건이면 뭐든지 다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헛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다 받아들이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등명 범등명(自燈明 法燈明)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세상,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온갖 환상에 속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 느낌 같은 오온은 그냥 조건이 되어서 일어날 뿐입니다. “마음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오온(五蘊)이라는 우리의 마음 작용에 속지 않을 때, 오온을 공(空)하다고 할 때 저 관자재보살처럼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이치로 생겨난 오온을 믿는 마음은 더욱 강해져 더 어리석고 외로워 집니다. 생각이 나 느낌 같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노력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등명 범등명(自燈明法燈明)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노력, 자기의 마음의 지혜를 얻는 노력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용맹정진하여 마음해탈을 이루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음파니반메출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범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8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총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부친은 석방 이후 환인현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더 북쪽인 유학현으로 옮겼다. 유학현 상원보는 밀양 출신의 윤세음, 윤세복 형제뿐 아니라 이회영 선생이 활동하던 본거지였다. 방명객들의 자치단체 경학사經學社와 신희무관학교가 상원보에 있었다. 경학사는 곳곳에 소학교를 세워 망명자의 자녀를 교육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자연

# 독립군이 되어 광복을 이루겠다는 꿈을 잠시 접다

난의 세월을 자주 말하곤 했다. “나라를 잃은 국치도 겪었고, 만주 땅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모습도 보았다.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세월을 견뎌야했다. 주변에서 도우려 나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압박과 감시가 깊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다 해도 못버틸 어려움은 아니었다. 반드시 조선이 독립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일가족은 다시 길을 떠났으니, 일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내몽골로 떠났다.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군의 실속 일부가 내몽골로 떠나는 길에 함께 나선 것이다.

대성사는 당시 내몽골의 사정을 종종 회고했는데, 그때까지 겪었던 어려움은 전조전

가족의 안녕이라도 도모해야겠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부친의 비장한 이야기에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대성사 형제는 이곳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과 싸워 조국 광복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야 했다. 대성사는 만주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제 치하를 피해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작심하고 망명길을 나섰다. 이제 만주 일대로 일제 치하에 놓일 지경이 됐으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처음 망명길을 나설 때는 네 식구였으나 서간도 땅에서 대성사 밑으로 여동생 둘이 더 태어나 이제는 모두 여섯 식구가 됐다. 고향을 떠

나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넉넉하였다. 하지만 그 재산을 독립을 위해 바치고 곡절을 겪으면서 가세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함께 끌려가 고초를 겪은 큰아들의 건강도 회복되지 않았다. 수중엔 여비 한 뿤 남아 있지

않았다. 대성사는 그때의 어려움을 이렇게 회고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어쩌다 비가 내리면 천막이 무너져 내렸다. 천막이 찢어지면 짐승들도 들고 나기를 한 데와 다를 바 없었다. 또 바람이 불면 천막 대부분이 찢어졌다. 남들은 그럭저럭 천막을 치고 버텼는데, 생선 천막이라고는 구경조차 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고, 나중에는 남아있질 않아서 버틸 도리가 없었다.”

도저히 견디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대성사의 가족은 결단을 내린다. “어떤 어려움도 이곳에서 버티려 했는데, 이제는 도리가 없다. 나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곳에서 후일을 도모하고

귀국길은 힘겨웠다. 망명길은 조국 독립의 꿈을 갖고 기꺼이 고난의 투쟁에 발을 딛은 것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은 그 꿈을 미루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성사 부모는 의젓하게 자란 자식들을 보며 미래를 믿기로 했다. 1922년경



하남면 백산의 1930년대 전경

의 일이다.

대성사 가족이 다시 돌아온 곳은 밀양읍에서 남쪽으로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하남면 백산리라는 곳이다. 밀양강이 완만한 흐름다가 낙동강과 합쳐지고, 인근의 삼랑진과 진영에서 더 나아가 김해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물자가 오가는 상업의 요지이다. 백산은 영남 일대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진영평야의 중심에 있다. 장터는 활발하고 인근 삼랑진, 마산, 창월, 진해, 김해와 부산에서까지 장꾼들이 몰려와 늘 활기차고 풍요로운 마을이다.

대성사 가족은 외가에서 장만해준 백산리 676번지에 머물게 된다. 집터는 넓었으며 하남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동쪽 편에는 밀양강이 흘렀다. 집에서 잠깐 걸어 나가면 낙동강이 보이고, 강 건너 진영쪽 모래톱이 섬을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풍광과 만나게 된다. 모든 일은 순조롭고 살림은 풍족하며 오직 평안한 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어느 날 부친이 대성사를 불렀다. “집안일을 돕는 것도 좋으나 이제 학교에 갈 때가 됐다.”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대구에 지사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세웠다. 그러니 일본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배울 수 있게 됐다. 너도 그곳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거라.”



청년 시절의 대성사 모습

서간도 유학현에서 소학교를 마친 후 마땅히 배움을 계속할 기회가 없었다. 백산으로 돌아와서도 왜인들의 학교에 갈 수 없어 구해 읽는 일로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밀양 일대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었다고 전한다. 당시 한학 서적과 불경은 물론이고 활자가 찍힌 책이라면 무엇이든 읽어본 시절이다.

그런 차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식은 대성사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이 됐다. 대성사 부친은 ‘사람은 마땅히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깨닫게 된 다’는 지론이 있었다.

# ‘비밀불교의 의궤’를 제정·공포, 전수의 시작

## 총지종의 역사

### 01. 전사 : 정통밀교종단의 발아

#### 총지종의 교상 확립①

원정 대성사는 스승과 교도들의 진언영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서울선교부에서 밀교 수행법을 전수하는 틈틈이 총지종의 교리 체계를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완전한 밀교의 교리와 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진해도 공덕이 없고 도리어 마장이 있음을 우려하여 삼밀가지(三密加持)의 올바른 수행법을 확립하기 위한 경전 탐구와 밀교의 행의 정립에 몰두했다. 여러 경전을 불철주야 탐독하여 발견한 밀교의궤의 역사성과 정당성, 그리고 정진 끝에 몸소 성취한 엄격한 밀교수행법을 체계화했다.

1972년 9월 9일, 밀교의궤서인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근거로 ‘비밀불교의 의궤’를 제정·공포하고 전수를 시작했다. 금강경과, 참회, 오대서원, 읍림, 읍지림, 읍마니반매홍, 준제진언, 서원사향, 실지정진, 출자오인, 회향의 순서로 불사법요를 정립했다. 그리고 여기에 세간 수행법으로서 식재(息災, 재난을 소멸하는 법), 증익(增益, 소원을 성취하는 법), 경애(敬愛, 존경과 사랑을 받고 화합하는 법), 항복(降伏, 일체의 사탄 마장을 조복시키는 법)의 사중수법(四種修法)을 제시했다. 나라를 구하고 도단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대비원력으로 창종을 준비한 대성사는 재난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부합하는 기도법이 서중수법이라고 확신했다.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할 때는 ‘재난 사바하’,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원할 때는 ‘소구여의 사바하’, 화합과 원만을 서원할 때는 ‘영일체진경에 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했다. 원래 밀교의 사중수법은 각각의 작법과 의궤가 다르지만 원정 대성사는 준제진언으로 통일하여 사중수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제진언은 공식불공, 대중법

회, 동참법회뿐 아니라 개인 영송 때에도 행했다. 이로써 ‘옵마니반매홍’ 육자대명왕진언과 ‘나무 싯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단야 타 음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 준제진언을 결합 것을 총지종의 핵심수행법으로 확립했다. 9월 29일, 교도 가정의 상징제례에 필요한 왕생막과 범등을 제작했다. 왕생막은 황색 우단지에 홍색으로 근조라 쓰고 옵마니 반매홍 육자진언과 육합상을 그려 넣고 총지종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아크릴 재질의 조립식 범등에는 홍색의 육합상과 총지종을 새겨 넣었다. 이어서 붉은 비단에 상단에는 육합상, 하단에는 황금색 한글로 육자진언을 새긴 왕생다라니를 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단 차원의 영식전도는 비밀의궤의 고결식순과 기제식순에 따라 진행했다.

이때 원정 대성사는 대외적으로 종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직접 고안하고 제작했다. 종단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을 원으로 구현하고 본존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과 육바라밀 실천수행법이 모두 녹아있는 육합상에 대해 대성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총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교기와 건불,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뱃지로 사용될 종단의 상징물을 고안하니, 이것이 육합상이다. 육합상은 중앙에 동근 원을 하고, 원으로부터 6개의 가시광선이 있고, 그 바깥으로 6개의 연꽃잎을 한 모양이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동시(同時)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했다. 원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므로 법신 비로자나가 다르지만 원정 대성사는 준제진언으로 통일하여 사중수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제진언은 공식불공, 대중법

한 것이다. 외곽의 6원은 불교의 교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육자진언, 육바라밀, 육합, 육도, 육근, 육결, 육식, 육관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육자진언 중 ‘마니’는 원이요, ‘반매’는 연화이며, 원은 남성, 연화는 여성에 비유된다. 즉 남녀상교, 음양원융의 뜻이며, 원은 물질 ‘과학’이요 연화는 심성 ‘종교’이다. 그러므로 물질불이의 뜻이며, 원은 현실이요 연화는 진리라.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眞) 색심불이(色心不二) 번뇌, 즉 보리의 뜻이다.(총지종 교사(敎史), 총기11년 9월 29일, ‘육합상을 고안 제작’)

육합상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상징물이 원상이다. 원상은 태양과 우주, 곧 비로자나불을 나타낸다고 동시에 윤회구족한 만다라를 상징한다. 둥글고 평평한 마음의 본성이자 본래의 대립이 없는 원용무애한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한 비로자나불의 범계조립식 범등에는 홍색의 육합상과 총지종을 새겨 넣었다. 이어서 붉은 비단에 상단에는 육합상, 하단에는 황금색 한글로 육자진언을 새긴 왕생다라니를 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단 차원의 영식전도는 비밀의궤의 고결식순과 기제식순에 따라 진행했다.

1972년 11월 11일 대성사는 총지종의 본존과 불사의식을 발표했다.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 공양물은 현화와 소향으로 국한하고 정수와 촛불을 쓰지 않는다. 셋째, 법의는 신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게 깎아 밀에까지 나리고 소매는 작은 흥탁소매로 하며 색조는 사중수법에 맞추어 백·황·홍·흑의 4색으로 정한다. 넷째, 가사는 육합상을 지수한 금가사(襟袿紗)로 한다. 그리고 11월 17일 종단 최초로 서울선교부에 육자진언 본존을 모셨다. 짙은 자주색 비단 바탕에 십단법자(悉曇梵字) 9로 된 육자진언을 금색실로 수놓아 금색 액자에 봉안했다. 진리의 본체이자 일체 생명의 근원인 법신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형상으로서의 불보살상이 아닌 문자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셨다. ‘옵마니반매홍’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덕 가운데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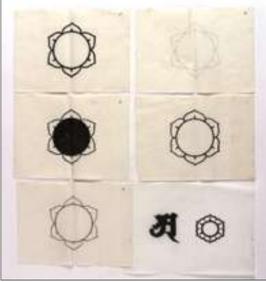


총지종 본존 육자진언. 원정 대성사 친필본

관세음보살님의 깊고 미묘한 본심이자 가장 으뜸의 진언이기 때문이다. 윤회무형의 진리의 모습을 불상이 아닌 진언다라니 그대로 본존으로 모신 것은 상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마음 본성의 깨달음을 추구하여 진리를 곧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법자 그대로의 진언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시므로써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중심 진언으로 지송하는 종단으로서 교의적으로도 완성을 기했다. 이로써 ‘옵마니반매홍’ 육자대명왕진언을 수행의 중심이자 해탈의 근원으로 삼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또한 『불설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의거하여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관음법을 중심의궤로 삼았다. 원정 대성사는 경전과 몸소 수행으로 증득한 체험을 바탕으로 육자진언과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을 함께 영송해야 상승적 공덕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본존과 의식을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밀교종단의 틀이 다져졌다. 때를 같이하여 곳곳에 서원당이 마련되었으니 총지종의 태동은 창종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밝혀냈다.



원정 대성사가 직접 고안한 교의 상징 육합상 스케치. 원정기념관 소장

**관성사 교도 광고**

#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수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제1기 초기 밀교의 성립 형성 시대

제2기 새로운 전개 맞이하는 시대

제3기 밀교적 수행법 정비의 시대

인도 땅에서는 밀교의 맹아가 형성될 때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어 초기 밀교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최초로 밀교 경전이 인도에서 성립하는 3세기경부터 중기 밀교의 '대일경'이 성립하는 7세기 중반까지, 4세기 반에 이르는 간격이 긴다. 그 긴 시간을 하나의 특징으로 말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초기 밀교의 시대를 3시기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초기 밀교의 전체상에 접근할 수 있다.

초기 밀교의 전시대를 제1기, 제2기, 제3기로 구분한다면, '제1기'라고 부르는 것은 최초의 밀교로 규정되는 시대, 대략 3세기에서 5세기 중엽, 인도 시대로 말하면 무상 왕조에서 굽타 왕조 전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밀교의 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성립되고, 점차 밀교적 색채를 띤 경전이 형성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제1기는 '초기 밀교의 성립형성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제2기라고 부르는 시대는 5세기 후반보다 6세기 중엽, 인도의 시대구분으로 말하면 굽타조 후기를 가리킨다. 이 제2기는 밀교적 특색으로 보나, 초기 밀교의 전시대를 통틀어 정확히 중간기에 해당하고, 급격히 밀교적 색채가 강해져 새로운 전개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초대 링린보체



티벳 광명정부를 이끈 고승들의 첫 모임(1963)

그동안 인문사를 역으면서 인도와 티벳의 아사리들이 전한 전기는 현교를 통해 지견을 갖추고 밀교를 통해 유가와 산신을 성취 한다는 정경화된 실천원리가 내재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현밀겸수를 숙없이 말해 왔지

를 맞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수호를 목적으로 한 다라니나 주문 중심이었던 1기 때부터 인제, 화상, 만다라 등을 이용한 의례가 조직되면서 기존의 다라니나 주문 중심의 밀교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밀교 요소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제2기는 '초기 밀교의 전개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제3기라고 칭하는 시대는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 무렵, 인도의 시대구분으로 말하면 굽타 왕조 말기부터 포스트 굽타 왕조 시대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대에는 밀교자(密敎者)의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거나 수행자의 소원 성취(悉地)를 얻기 위한 밀교적 수행법이 정비되는 특징이 있다. 또 수행에 필수적인 만다라와 화상(畫像)이 복잡해지고, 이를 이용한 관정의례가 변화하여 성불을 지향하는 의례로 재구성된다.

이것을 가지고 초기 밀교의 확립이라고 보면, 제3기는 '초기 밀교의 확립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4세기 반에 걸친 초기 밀교는 다양한 변천을 거듭하여 확립되어 간다.

**제1기 시대의 초기 밀교의 맹아**  
그런데 제1기 최초의 밀교의 경전은 중

**초기밀교의 전개와 형성①**

국의 경록(經錄)에 근거하면 <밀교계 달라니 경전>과 <밀교계 호주(護呪)경전>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계통으로 크게 나누는 경전군은 표와 같다.  
<밀교계 다라니 경전>이란 선행하는 대승의 공사상이나 다라니사상에서 전개한 밀교계 다라니를 중심으로 한 경전군을 말한다. 그에 반해 <밀교계 호주(護呪)경전>은 소승부파의 빠릿따(Paritta, 護)에서 전개한 주문을 중심으로 한 경전군이다. 이 점에서 최초의 밀교는 대승과 소승부파 양쪽 모두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밀교의 맹아는 대승·소승부파 중 어느 하나로만 국한될 수 없다. 그런데 소승·대승을 포함한 불교 근본설일체유부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3세기 후반경에 ①을 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호와 안녕'이라는 동기를 바탕으로 두 계통의 밀교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왜 무적(呪的)다라니를 설파하는 <밀교계 다라니경전>이나 주문을 설파하는 <밀교계 호주경전>이 3세기 초부터 후반에 걸쳐 같은 수호와 안녕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일까. 불교인이나 인도 민중에게 신변의 위업을 얻고 안녕을 바라는 심장

은, 주문을 금지한 석존의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로 마찬가지로 주문을 의우하는 자가, 한정하면 근본설일체유부의 주변에 있는 자가 드라비다계 주문을 빠릿따에 대체하여 경전에 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로 대승 다라니와 소승부파의 빠릿따가 기정사실화하고 경전 작가 주변에서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 작가들이 呪의 다라니와 주문을 담아 밀교 경전을 새로 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다라니와 주문의 창출(唱誦)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밀교 경전이 제작된 것이다. 거기에는 최초로 밀교계 여러 경전이 제작된 만큼 목적의식이 숨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밀교계 호주경전>의 ②~④에 현저한 인도 사화의 현두화와 함께 나타난 인도 고래의 주문이나 주문 신앙의 대두를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 인도 고래의 주문과 주문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대승다라니를 밀교계 다라

**제1기 초기 밀교 경전(3세기~5세기 중엽)**

<밀교계 다라니경전>	<밀교계 호주(護呪)경전>
① '무량론미밀지경(無量門微密持經)',1권	① '대금색공직왕경(大金色孔雀王經)',1권
② '지구신주경(持句神呪經)',1권	② '마나리단경(摩尼羅蜜經)',1권
③ '화적다라니신주경(華積陀羅尼神呪經)',1권	③ '향사발타신주경(向師發脫神呪經)',1권
④ '대방동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4권	④ '만특라마유술경(曼特羅麻油誦經)',1권
⑤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淸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1권	⑤ '관약왕이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1권
⑥ '십일면관세음신주경(十一面觀世音神呪經)',1권	⑥ '대갈의신주경(大迦旃延神呪經)',4권

**달라이라마의 스승 링린보체의 계보 ①**

수행을 거쳤으며 도량이나 범회를 통해 대중을 마중하고, 승려로서 가난과 고탈, 학덕을 장애를 물리치는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조차 아니다. 현교의 반야와 보살행을 공부해 그것을 이룬 후 밀교에 들어 관정을 받고 불신을 성취하는 연역적 수행차체가 현밀겸수의 바른 이해이다. 성불을 구하는 자가 범신·보신·화신의 성취를 의식적으로 담지 못하면 그는 불교수행의 목표를 아직 확립하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밀교를 모르면 그는 최소 인도불교에 기반을 둔 불교수행을 지견에 입각해 모르는 것이다.

불교수행의 단계를 '도차제(道次第)'라 한다. 인도에서 일어났던 도차제 연구가 한국 불교에 절실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밀교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티벳인들이 나라를 잃고 망명적인 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티벳 본토의 전통사찰을 세워 티벳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학교를 세워 전통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광명정부는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기에 티벳인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심에는 달라이라마 14세 생사가 있으며, 나머지 광명정부의 행정각료를 린둑가초는 대부분은 사찰의 주지나 범주 등의 고승이었다. 이들은 티벳의 전통적인 현교와 밀교의 혹독한

원의 주요과목은 현관장엄론·중관학·구사론을 마중하고, 승려로서 가난과 고탈, 학덕을 장애를 물리치는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조차 아니다. 현교의 반야와 보살행을 공부해 그것을 이룬 후 밀교에 들어 관정을 받고 불신을 성취하는 연역적 수행차체가 현밀겸수의 바른 이해이다.

달라이라마는 어릴 때부터 혹독한 불교공부와 수행을 거치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교육은 과묵별로 이름 있는 승려들이 초청되어 개인지도나 사원의 승가교육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담 교사아사리가 있지만 특히 링린보체와 티장린보체는 달라이라마의 교육을 맡기 위해 함께 전생하는

이때 제6대 달라이라마인 장양가초의 친

**달라이라마, 유아부터 혹독한 불교공부와 수행 전담 교사아사리가 함께 전생하는 독특한 인연**

독특한 인연을 맺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친교사로서 최초 인연이 된 링린보체는 1655년 티벳 동부의 캄 지방 나경지역에서 태어났던 린둑가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대한 수학을 갈망하여 1677년 13살 때 라사에 있는 대보광 사원에 출가하였다. 사미로서 출방하면서 린둑가초는 논리학과 주요과목들을 외우기 시작하였으며, 매일 20페이지 이상의 텍스트들을 암기했다. 사

니로 변용시켰을 것이다. 또한 인도 고래의 토착 주문, 특히 드라비다계 주문을 의우하는 자가, 한정하면 근본설일체유부의 주변에 있는 자가 드라비다계 주문을 빠릿따에 대체하여 경전에 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로 대승 다라니와 소승부파의 빠릿따가 기정사실화하고 경전 작가 주변에서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 작가들이 呪의 다라니와 주문을 담아 밀교 경전을 새로 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두 무리의 경전 작가들이 의도하는 바는 교단 내에 대두하는 인도 고래의 주문과 주문에 따른 呪의다라니와 주문, 이를 통해 수호와 안녕을 얻으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최초로 밀교의 맹아로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1기 초반 밀교'는 비불교적인 인도 고래의 주문이나 주문신앙에 뿌리를 둔 수호와 안녕을 목적으로 한 밀교였다고 할 수 있다.

**종립 동해중 반야회 5월 정기 법회 개최**

‘자녀 자존감 높이는 부모 되기’ 강기도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인 반야회(회장: 김지영) 5월 정기 법회가 23일 교내 동해사에서 열렸다. 2부 행사는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프로그램이 진로실에서 진행됐다. 법회에서는 불교총지종의 수행법과 불공법에 대해 지도법사 법선 정사가 법문을 했으며, 2부에서는 김순희 박사가 초청되어 '자녀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1시간 반 가량 강의 했다. 또 이 자리에는 송인근 학교장이 참석해 학교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지영 회장은 "과도기인 자녀들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소통하고 대처해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동참했다.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총지사(주교: 목경 정사) 교도들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성해, 선도원 기로스승과 범수언 전수에게 케이크와 꽃다발을 전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인사, 포항 오어서사 관불**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 스승과 교도들은 5월 13일 포항시 오어서사(吾魚寺)로 관불을 나갔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밖으로 나온 사부대중은 다함께 불심을 증강하고 우의를 다졌다.

**‘디지털 체험존’ 설치·운영**

석관실버센터, 키오스크 사용 교육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석관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영)가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디지털배움터'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디지털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하고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기기 체험 지원과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오스크는 최근 패스트 푸드, 상점, 휴게소, 카페, 영화관 및 레스토랑에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음식점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와 동일하게 직접 음식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단계별로 체험해 볼 수 있어 이용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957-9923)

**처음 마음 그대로 살아가자**

‘처음 마음 그대로(初發心)’란 불교에서 구도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본래는 불성(佛性)이 있었으니 이를 닦아 성불하겠다는 최초의 뜻을 세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초발심(初發心)을 가슴으로부터 이끌어 내려고 할 때는 세속적인 부기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듯 잠시 초심을 간직하여 이러한 세 가지 지나침(over)을 버려야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초심은 '지나친 자신감(over-confident)', '지나친 욕심(over-ambitious)', 그리고 '지나친 의욕(over-committe)' 때문에 때로는 일을 그려치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못하면 아직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생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듯 잠시 초심을 간직하여 이러한 세 가지 지나침(over)을 버려야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순수함, 시작 당시의 맑은 내용의 열정, 또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잃고 사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다시 한번 더 초심을 점검해 보고 회상해 보고 더 나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며,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지든 초심을 잃으면 사심이 횡행하게 됩니다. 사심이란 것은 결국 내 몫 챙기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결국 남는 것은 쓰러린 좌절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항상 맑게 하고 살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심이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할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볼

관성사	우인	4/25	10,000	단행사	이수형	4/30	10,000	수인사	법상	4/27	20,000	정각사	노경호	5/18	15,000	
	보명심	4/27	10,000		지홍	4/30	10,000		수인사 수인정	5/19	50,000		유승태	5/15	10,000	
관성사	황성녀	4/29	10,000	덕회사	법상인	4/27	20,000	실보사	박현정	4/26	20,000	초록 어린이집	김혜란	4/25	50,000	
	김동운	5/17	30,000		이진승	4/28	10,000		안명지 서연희	5/2	20,000		김해란	4/25	10,000	
관성사	공역성	4/25	20,000	동해사	법상인	4/25	10,000	실보사	무명씨	5/2	20,000	충지사	곽경	4/25	20,000	
	상지화	4/25	10,000		김진화	5/2	10,000		무명씨	5/20	20,000		김정환	5/1	10,000	
관성사	수승원	4/25	10,000	만보사	송인근	5/18	10,000	실보사	이도현	5/9	10,000	충지사	백귀염	5/10	10,000	
	밀광정	4/25	10,000		강명순	5/13	10,000		이서현	5/9	10,000		김승민	5/10	5,000	
관성사	총지화	4/25	10,000	밀인사	정영심	4/29	5,000	실보사	이루나	5/9	10,000	충지사	무명씨	5/10	10,000	
	범수원	4/25	10,000		범천사	범야심	5/2		10,000	유승우	5/9		10,000	신성희	5/13	10,000
관성사	선도원	4/25	10,000	범화사	박미경	4/25	10,000	실보사	보현	5/9	30,000	충지사	신현태	5/13	10,000	
	법지원	4/25	10,000		인선	4/27	10,000		관득	5/11	10,000		홍수민	5/16	10,000	
관성사	일성해	4/25	10,000	범화사	정계월	4/27	10,000	충지사	보현	5/16	30,000	통리원	백근진	5/3	10,000	
	사용화	4/25	10,000		승환	4/25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김영서	4/26		50,000	최영정	4/29	50,000
관성사	안주화	4/25	10,000	범화사	윤완화	4/25	10,000	충지사	정동숙	4/27	50,000	충지사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최영정	4/29	50,000
	진일성	4/25	10,000		이민선	5/2	50,000		윤사	변아화	5/10		20,000	충지사	강영미	5/1
관성사	시각화	4/25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영순	4/25	10,000	충지사	이후나	5/9	10,000	충지사	무명씨		5/3	10,000
	최상관	4/25	10,000		남영애	5/2	30,000		연명구	4/25	10,000		황득자	5/10	10,000	
관성사	연동원	4/2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최영미	5/10	50,000	충지사	규미자	5/2	10,000	충지사	왕양	5/19	10,000	
	자선화	4/25	10,000		조영환	5/12	10,000		도우	5/9	10,000		묘성해	5/19	10,000	
관성사	승효재	4/2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박정민	5/13	10,000	충지사	지현	5/9	10,000	충지사	힐스 어린이집	곽병은	5/10	50,000
	해정	4/27	10,000		오선혜	5/2	10,000		안현수	5/7	10,000		충지사	탁상달	5/13	10,000
관성사	장정숙	5/16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영	4/25	50,000	충지사	신말심	5/16	20,000					
	신말심	5/16	20,000		김용기	4/25	20,000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상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별 경우 회장이거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령, 통신란에 주소로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⑩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보현행원에 담긴 생명이야기 ①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입니다. 대승(大乘)이란 큰 수레라는 뜻으로 기존의 불교를 작은 수레 즉 소승(小乘)이라 칭하고 그에 비해 새로운 불교는 큰 수레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존의 불교를 '상좌부 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데 현재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지금도 이 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멸 후 500년경부터(서력 기원전 1세기 경) 시작된 대승불교는 기존의 불교가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여 출가자들의 전유물이 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을 하는 대승불교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일부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더불어 많은 불자들이 수지독송하고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법화경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독경을 하며 왜 이런 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저 옛날 사람들의 경전이니가 라고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를 낳은 문명

의 뿌리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원론의 세계관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대승경전에 나타난 깊은 생태주의적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보현보살제대중 집금강신중신축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화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주아수라 가루라왕킨나라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장계>에서 보면 주지신(主地神), 주림신(主林神), 주하신(主河神), 주해신(主海神), 주화신(主火神), 주수신(主水神) 등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보면 자연에 깃든 신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신성을 존중하는 사상을 애니미즘이라고 하여 미개하다고 배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비과학적이고 정근대적이며 버려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연에게서 신성함을 빼앗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존의 애니미즘을 사람들의 삶에서 때어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이슨 허켈이 쓴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자본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대지에서 인간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명성을 누리고 있던 애니미즘 사상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또한 땅에서 정령을 몰아내고 땅을 인간이 추출하는 '자연 자원'의 단순한 저장소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불심이 강한 티베트인들은 집을 짓다가 개미를 발견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공사를 중단하고 개미들을 모두 이주시킨 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들이 임금노동자라면 고용주는 이런 노동자를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를 하나 벨 때나 화장실을 고칠 때에도 미리 나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하고 미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수한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있는 지혜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 자연과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야 하는 경제시스템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를 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조차도 서로를 돌봐줄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장주의 경제는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깊은 관계도 파괴하고, 고립되고 불안하고 외로운 개인들을 낳는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보살은 자리아타를 행합니다. 지금의 성장사회는 지구생명체를 파괴하고 인간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문화를 벗어나기 위한 문명적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은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아타의 보살행과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엄청난 스케일의 문명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망막하다 못해 불가능해보입니다. 이윤중심의 성장산업사회를 끝내고 생명중심의 '생태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공양하여도 몸과 말과 뜻으로 실천하는 일에 지지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는 보현보살의 행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줍니다. 앞으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을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누는 것이니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 주시고 허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꾸짖을 일이 있으시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詩방지도

돌담처럼

수인사 김용오 목사

우리는 너와 나는

돌담의 지혜를 배워 가자 서로의 반자리를 내어 주면서 모난 것은 내가안고 둥근 것은 또 니가 안고

층층이 깎지 끼고 한 생을 약속하며 햇살의 속삭임에 미소로 답하고 바람도 안아 다독이는 돌담되어

그렇게 그렇게 살아 가자.



불교서적 월간베스트(5/1~31)

제공 : 도서출판 운우사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Lists best-selling Buddhist books for the month of May.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Section for '총/지/문/답' (Q/A) and '준제관음법' (Jungegwon-gwanbeom). Includes a table for Q/A and text for the sutra.

Section for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Praying for Paradise Birth) and '총지스케치' (Chongjis Sketch). Includes text about prayers and a sketch of a landscape.

Advertisement for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Includes a map of the clin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불교승지증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Buddhist Ordination Guide and Staff List). Includes a list of ordination events and a detailed staff list with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 기념 -

#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 『불공 잘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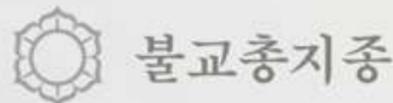
### 독후감 공모전



만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  
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같이 한 번 생각하면 착한 복을 얻  
살려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죄를 면하며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  
는 벌레 등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외도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  
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행하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현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  
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행하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  
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  
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공모내용	'불공 잘해라'를 읽고 독후감 제출
응모자격	교도 및 독자 누구나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A4 용지 10point 2매 내외)
접수기간	총기 51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접수방법	이메일 news@chongji.or.kr 또는 방문 접수
수상자 발표	7월 중 발표 후 총지신문 게재
시상식	창종 5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
시상 내역	총령상, 통리원장상, 종의회의장상 외 (상패 및 부상 수여)

